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필민입니다. 저는 사림의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매나싸스 캠퍼스를 시작할 때부터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자란 것이 10 년이 됩니다. 저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여 이 자리에서 떨고 있습니다만, 지난 10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발한 지점으로부터 먼 곳까지 인도하셨고 그것에 대해 우리는 그저 감사 드릴 것 밖에 없습니다.

10 년 전, 9 학년이었던 저는 유스 그룹 안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형 교회에 다니다가 옮겨 왔기에 기타를 멘 정도사님과 열 명 정도의 유스가 모여 예배 드리는 환경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기 소개를 하고 첫 찬양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를 두 번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찬양팀과 설교자가 있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아 볼 때 지금처럼 이 교회와 차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10 년 동안 우리는 여러 목회자들을 보내고 또 맞았습니다. 그 때마다 힘들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만난

목회자들은 모두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섬김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저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번의 우여곡절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과 욕망을 내려 놓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제가 오늘의 제 모습이 되기까지 연약함을 드러내고 지혜를 구하여 성숙해 지도록 품어 준 안전한 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귀의 교회가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계속 안전한 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내다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축복해 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알려지고 높여 지기를.

다시 한 번 우리 교회의 열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불가능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서로를 도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